

친구수기(다음의 글은 “주부편지”에 실린 글을 그대로 실습니다.)

훌륭한 가정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저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느 가정의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의 가정은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병원 원장이고 하나뿐인 아드님도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따님도 인정 많고 덕 있는 분들이어서 저는 남의 집 살이 하는 것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 가족 모두가 감사하여 저는 정성을 다해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제가 스무 살이 된 어느 날, 저는 뜻밖에 그 때 아드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과 심한 충격으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그 집을 떠날 궁리만 했습니다. 주인댁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고 집안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는 아들에게 부모님의 승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성의를 다하여 꾸준하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납득시켜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들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아드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는 저에게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내로 택해주고 며느리로 맞이해 준 우리에게 갚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가 의사인 남편의 아내답게 되는 것이고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이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거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의 처지에서 그 때의 며느리로 처지가 바뀐 것입니다. 저를 선택해준 남편과 받아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길은 이전에 제가 가정부로 일하던 때의 의식이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님의 며느리답게 그 남편의 아내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초라한 여자를 이렇듯 고귀한 가정의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훌륭한 남편의 아내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작,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가문이 원하는 며느리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도 함께 하는 과정이었으나, 오직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그 가문의 모든 가족이 저를 인정해 주고 그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그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의 저를 기쁨과 보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힘입니다. 저의 재산입니다.

- Y교회 K 집사 -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City 한인교회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 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8월 8일
☎(64-9)298-6464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우리교회의 높은 교회탑을 볼 때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시작하는 윤동주의 시구가 생각납니다. 높은 곳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만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에 교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만남을 제공하는 곳임을 알리는 뜻에서 높이 솟은 종탑을 세웠지 싶습니다. 아니면 중세시절에 내면의 영성이 사라져 감이 부끄러워 외적인 것으로 애써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표현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테로 의미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교회는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 발표회 준비로 보냈고 부흥회 시절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만담 같은 웃기는 얘기를 기대하며 강대상 옆까지 뺨뚱이 앉아야 했던 곳, 저녁예배불을 밝히기 위해 그을음으로 덮인 등잔의 호야를 닦던 곳, 큰 산소통을 걸고 그것을 종으로 삼아 초종,재종이라 부르며 치던 곳, 예배 후엔 장작 난로 주위에서 연통에 가래떡을 그으면 생기는 얇은 종이짜 같은 떡을 먹던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교회가 있었기에 어릴 적 꿈만은 풍요하게 남아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믿음으로 넘쳤기에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여 기뻐했고 미래는 항상 열려있는 세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다는 것이 이처럼 좋은것인줄 그때처럼 행복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때에 비해 사는것도 풍요롭고 비록 빌려서 사용하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넓고 좋은 예배당입니다. 지금생각해보니 지금의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감만큼은 어린시절 허술한 예배당에서의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한주 한주 기도와 기대 속에 주일을 맞지만 때론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민지 광고 후엔 전화를 기대하여 벨소리에 마음이 뚝뚝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목사인 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임을 점점 인식케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기도는 뒤쳐져 있고 생각과 계획만이 저만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가짜라고. 가짜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 진짜로 기도 많이 하여야 겠습니다.

주 일 예 배

*묵 도
Silence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찬 송 93 장
Hymn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사 도 신 경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찬 송 182 장
Hymn

목 회 기도
Pastoral Prayer

성 경 봉 독 마 1:18-25, 눅 1:5-17
Scripture Reading

복 음 송 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Praising

설 교 "예수의 나심"
Sermon

설 교 후 기도
Prayer

찬 송 204 장
Hymn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응 답 송 "좋은신 하나님"
Response Song

*위탁의 말씀

*축 도
Benediction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1		김 정 훈	한 건	안은주/김성국
8	김 성 국	지 윤 수	지 윤 수	김 효/지윤수
15	지 윤 수	한 건	한 건	안은주/한 건
22		지 연 희	지 윤 수	김 효/지윤수

오후 1:30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아 동 부

다 같 이

다 같 이

김성국 목사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인 도 자

김성국 목사

교 회 소 식

1. '99년도 교회표어인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를 함께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신 양: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2. 교회 등록은 3주 동안은 예배와 친교참석을 통해 그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등록안내와 규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에는 자유로운 판단을 위하여 등록을 권하지 않습니다.

3. 금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구역예배를 드립니다.

장소: 김성국 목사 가정 2/12 Beaumaris way, Conifer Grove.

시간: 금요일 저녁 7:30

어린이: video 성경이야기

4. 예배를 위해 올겐 & 피아노 반주자를 기다리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5. 다음주일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6. 지난주간 태풍과 홍수로 6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고국과 피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7. CBMC 주최 광복절기념 연합예배

일시: 14일(토) 7:00-9:30pm 장소: Auckland Girls Grammer School

8. 기도하여 주십시오

1) 우리 교회 전용 예배실과 사무실을 위해(1층 Hall)

2) 수요일성경공부와 기도회 시작을 위해

3) 토요일 저녁 family service(토요일에 드리는 온가족 예배)의 시작과 찬양팀 구성을 위해

9. 9월 방학기간에 가질 신앙캠프를 위해 좋은 장소(캠프장)를 알고 계신 성도의 정보를 기다립니다.(1-2시간 거리이내)

10. 9월 예배위원(기도, 친교,안내)을 감당하실 성도의 자원함을 기다립니다.(봉사와 섬김 자원서 사용)

